

기저촌 활동 일지

기저촌 활동 일지

기저촌 활동 일지

활동지역	
활동기간	
기활대 이름	
기활대원 이름	

4기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협의회 기저촌 활동 추진위원회

## 기지촌의 조국

척박한 나라일수록  
몸으로 배울 일이 많으니  
半島같은 나무에서 가랑잎때 같은 여자들  
기지촌 마당으로 가랑이 켜진 채 떨어져 쌓이는 소리 듣는가  
분꽃이나 채송화마냥 여위고 조그만  
허리로 구좌도 채 안벗은 일본군졸들을  
하루에 스무명도 받아야 했다던 정신대  
지금은 식민지도 아닌데 전쟁중도 아닌데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며  
통일의 역군 양치를 위한 길이  
곧 애국이고 돈도 버는 길이라며  
신체발부, 부모님이 주신 밑천을 쓰니 쉽기도 쉬운 일이라며  
살려고 벼등거리는 꽃잎다리를 이 곳 마당에 뒹뒹이하는  
잘먹고 잘입는 살찐 동포야

우리들의 조국을 묻지마세요  
분꽃씨처럼 까맣게 오그라든 기지촌 여자들의 국적은 분노와 그리움.  
분노를 조국으로 한 이들이 어디 우리뿐이겠어요  
반도나무기둥에서 머지않아 구실좋은 외군, 총칼들 물러지고  
우리들 조국이 깨끗 일듯 활활 타오르겠죠.  
그 때 과거 흙 삼지않는 원산땅이나 해남뜸에 가  
정갈한 조국 덕보며 살고파요.



생활수칙을 정해 보시다.

## ▷ 들어가는 지역의 실태

주둔기지:

민주단체:

기존 여성들의 센터 또는 놀이방:

알고 싶은점:

요렇게 해요!!!

#일지는 매일 매일 작성합니다.

#하루평가를 꼭 합니다.

# 함께 느끼는 기쁨, 동료들과 돌려봅니다.

# 절대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소중히...

통일 맞이 95년 월 일

아름다운 무엇?  
은글은 은글하고

(무부)

아름다운 직업?  
은글은 은글하고

(놀이방)

아름다운 직업?  
은글은 은글하고

(오후 직업)

아름다운 삶?  
은글은 은글하고

(평화, 사랑)

아이들 발달 상황

어린이들의 만남

내일은 무엇을?

(준비할 것)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